

기호



믿는다 우리노조

조합원이 주인되는 노동조합 건설!!

김형진 위원장 후보

2005년 제10대·2009년 제12대 노동조합 집행부
2013년 제14대 노동조합 대의원
2019년 제17대 노동조합 대의원회 의장(현 대의원)
일본 프로그레시브 록 가이드북 번역(알라딘 팍북부문 베스트셀러)
현) 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2015~)·참여와소통위원회 위원(2020~)
현) DU문화원 문화진흥팀장(2018. 8~)

박재찬 부위원장 후보

2001년 제8대 노동조합 조사통계부장
현) 대학평의회회 평의원(2020.12 ~)
현) ACE+사업단 사업지원팀장(2018. 7~)
현) 정보통신대학 행정실장(2021. 5~)

1 信 **우리노조**

변화 & 균형

소통·화합·상생 노동조합

- 열린 유튜브 채널 운영
 - 노조회의(대의원회) 중계
- 화합과 상생을 위한 직종 단일화 추진
 - 일반직+기술직+관리운영직
- 세대간 소통을 위한 청년국장(사무국장급) 임명

조합원 제일주의 노동조합

- 조합원 직무 전문성 강화 지원
 - 자기계발 포인트 반영 등 직원 평정제도 개선
 - 본교 석·박사 입학시 근무시간 배려 및 교육비 지원 확대
- 대학위기 극복 기여 부서(입학, 취업, 외국인 유치 등) 근무자 파격 인센티브(승진, 급여) 부여 관철
- 외부 재정 유치시 인센티브(10% 이내) 지급 관철

투명·당당 노동조합

- 대학과 연계한 중장기 고용안정 정책 연구
- 투명한 노동조합 만들기
 - 조합재정(적립금 포함)의 투명하고 합리적 운영
 - 절약예산 편성 및 조합 운영 사항 수시 공개
 - 노동조합 각종 기구 활성화 및 민주적 운영
- 직제개편 과정 적극 참여
- 대의원과 소통 강화
- 대학 공동체 소통 활성화(교수회 등)
- 전국사립대학연맹 활동 적극 참여
- 전임조합 기조 및 우수사업 승계로 조합의 연속성 확보



기호

1 信 믿는다 우리노조

안정 & 행복

행복한 직장 생활 지원

- 가족돌봄 유연근무제 운영 관철: 10 to 6, 8 to 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주 15~35시간, 1회 3개월 이상
- 코로나19 시대 스마트워크 근무제 도입: 원격, 재택근무 활성화 등
-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 3년 휴직 보장,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대체근로 투입 관철

건강한 직장 생활 지원

- 독감백신 접종 지원
- 점심시간 이용 건강 캠페인
 - 건강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 힐링 여행 지원: 영덕연수원 할인 혜택 부여 등
- 출산 축하금 지원

아름다운 인생 설계 지원

- 장기근속자 특별 공로휴가제 도입
- 정년과 연금수령의 미스매치 해소
 - 퇴직 후 재고용 또는 정년 연장(65세) 추진
- 퇴직 1년 미만 직원 대상 '행복 인생설계 프로그램' 운영 관철
 - 퇴직 대비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및 시간 할애



기호1 信 믿는다 우리노조

우리 노동조합의 저력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우리 대학은 올해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실감한 이후
구성원 모두가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대학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짐을 보이고 있었지만,
준비는 미흡했고 구성원 일부는 여전히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상황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우리 대학의 저력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학의 위기 앞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잘못된 관행,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바로잡아 나갑시다.

해묵은 감정, 모두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게 뿌리내린 불신의 벽을
허무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노동조합다운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민주적 조합 운영, 조합원 권익이 우선인 기본 상식이
통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당당한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으며 할 말은 하는,
당당한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평조합원의 고충에 귀와 마음을 열고,
함께 아파하고 헤아리고,
해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서는 친근한 조합,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무의미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다시, 조합원에게로!

믿고 뽑는 후보

기호1번 김형진(정)·박재찬(부), 믿고 맡겨 주십시오!

노동조합다운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